

# 박주영·이동국 '투톱' 뜯다

내달 6일 크로아티아 평가전... 유럽파 등 정예 멤버 총출동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최 감독은 내달 6일(한국시간) 오후 11시5분 영국 런던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열리는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에 나설 24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21일 발표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완지시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해온 자리를 잡은 기성용을 필두로 잉글랜드 웹파인업에서 골 소식을 잇달아 전한 이청용(볼顿)과 김보경(카디프시티)도 대표팀의 측면 지원으로 선발됐다.

독일에서 활약하는 3인방인 손흥민(함부르크)-구자철-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도 뽑힌 가운데 최전방 공격자원인 박주영도 최 감독의 선택을 받았다.

수비 라인에서는 '베테랑의 귀환'이 눈에 띈다.

최 감독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3차전 이후 체력 저하를 이유로 최근 두 경기애 효율하지 않은 이정수(알 사드)를 오랜만에 불렀다. 또 지난 해 11월 호주 평가전에서 부르지 않은 과테페(알 사법)를 다시 뽑아 이정수와 중앙 수비 조합을 맞추게 했다.

최 감독은 또 중앙 수비의 '젊은 피'로 인정받은 올립비 대표팀 출신의 황석호(히로시마)와 장현수(FC도쿄)를 발탁해 신구 조화를 노렸다. 광주에서 전북으로 이적한 미드필더 이승기도 부름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주영과 투톱으로 나설 이동국(전북)이 여길 없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장신 공격수 김신욱(울산)도 공격수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골키퍼 자리는 김영광(울산)과 정성룡(수원)이 차지했다.

한편 최 감독은 이번 평가전에 나서는 선수들로 월드컵 최종예선을 치를 계획이다.

최 감독은 "3월 26일 카타르전, 6월 3연전으로 이어지는 최종예선 경기를 염두에 두고 선발했다"면서 "가능

하면 이 멤버로 최종예선 4경기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관심을 끄는 박주영-이동국의 공격 조합에 대해서는 "이란과의 최종 예선에서 졌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져 환경기는 모두 이겨야 한다"면서 "모험적인 경기를 하면서도 초반 득점이 필요여 여러 가지 공격 조합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크로아티아 평가전 대표팀 명단 (24명)

▲GK = 김영광(울산) 정성룡(수원) ▲DF = 곽태휘(알 사법) 김기희(알 사일라) 신광훈(포항) 윤석영(전남) 이정수(알 사드) 장현수(FC도쿄) 정인환(인천) 최재수(수원) 최철순(상주) 황석호(히로시마) ▲MF =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 기성용(스완지시티) 김보경(카디프시티) 김재성(상주) 손흥민(함부르크) 신현민(알 자자라) 이승기(전북) 이청용(볼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FW = 김신욱(울산) 박주영(셀타 비고) 이동국(전북)

/연합뉴스

## '지·구 특공대' 아우크스부르크를 구하다

### 구자철 3호골·팀 승리 합작

### 지동원 분데스리가 성공데뷔

독일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24)과 지동원(22)이 나란히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현지 언론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21일(한국시간) 아우크스부르크와 뒤셀도르프의 2012-2013 분데스리가 18라운드 경기를 마치고 구자철과 지동원에게 평

점 2점(1점이 최고점)을 부여했다.

이날 2골을 넣은 사샤 월더스, 골키퍼 알렉산더 마이너 등과 같은 팀 내 최고 평점이다.

이 경기에서 구자철은 팀 1-0으로 앞선 전반 45분 토비아스 베르너의 크로스를 골대 오른쪽에서 받아 오른발로 차넣어 시즌 3호골을 터뜨렸다.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갑작적인 슈팅으로 연결, 팀이 3-2로 이기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른 지동원도 수차례 슈팅을 시도하며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구자철의 득점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수의 견제를 날렵하게 피한 뒤 베르너에게 패스, 골에 간접적으로 보탬이 됐다.

손흥민(21·함부르크SV)은 뉘른베르크와의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팀은 1-1로 비겼다.

한편 앞선 20일에는 전남 드래곤즈 유스팀 출신의 유망주 박정빈(19·그로이터 뷔르트)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데뷔했다.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 국회 맞을까

###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점 2점(1점이 최고점)을 부여했다.

이날 2골을 넣은 사샤 월더스, 골키퍼 알렉산더 마이너 등과 같은 팀 내 최고 평점이다.

이 경기에서 구자철은 팀 1-0으로 앞선 전반 45분 토비아스 베르너의 크로스를 골대 오른쪽에서 받아 오른발로 차넣어 시즌 3호골을 터뜨렸다.

각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갑작적인 슈팅으로 연결, 팀이 3-2로

이기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날 분데스리가 데뷔전을 치른 지

동원도 수차례 슈팅을 시도하며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구자철의 득점 상황에서는 상대 수비수의 견제를 날렵하게 피한 뒤 베르너에게 패스, 골에 간접적으로 보탬이 됐다.

손흥민(21·함부르크SV)은 뉘른베르크와의 경기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팀은 1-1로 비겼다.

한편 앞선 20일에는 전남 드래곤즈 유스팀 출신의 유망주 박정빈(19·그로이터 뷔르트)이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 데뷔했다.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 "광주 FC 구단 운영 투명하게"

박해구 사무처장 회견 "감사 실시·팀장 교체"



박해구 광주 FC 사무처장이 감사를 통한 투명한 구단 운영과 인적쇄신으로 재도약의 2013년을 맞겠다는 각오다.

"새 조직과 마음가짐으로 새출발하겠습니다."

광주 FC의 박해구 사무처장이 21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구단 채신 의지를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새로 처장 자리를 맡은 뒤 업무 파악을 하는 동안 자본금 임금, 무자격 예이전트 위임, 과도한 숙소 매입 등의 문제를 불거졌다"며 "시민구단으로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문제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하고 1부 승격을 위해 새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와 팀장 교체 및 전문가 영입을 약속했다.

박 사무처장은 "예산 운영에 대한 얘기가 많았다. 대주주인 광주시체육회를 통해 감사를 실시해 투명하고 건전한 구단 운영을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0년 61억원의(시민주 21억, 유상증자 40억) 자본금으로 창당됐지만 매년 은행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예산 운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박 사무처장은 "메인 스폰서 확보라는 숙제가 남아있지만 선수 이적료 수입금(28억), 광고 수익금(25억), 연맹 강등지원금(8억), 이월액(3억), 연맹증계수의 금(1억4000만원) 등 이미 65억의 수입이 확정됐다. 여기에 시즌 회원권, 후원금 등 자체 수입이 9억원 정도로 예상돼 올 시즌 예산은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인적쇄신 방안도 언급했다.

구단 사무국을 사무처로 변경한 광주는 최근 무자격 예이전트 위임과 숙소 매입으로 이들이 오르내린 총무팀장과 홍보마케팅 팀장을 대신해 전문가를 영입, 안정된 조직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2부 강등이라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근 무자격 예이전트 위임과 숙소 매입으로 이들이 오르내린 총무팀장과 홍보마케팅 팀장을 대신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상황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최근 무자격 예이전트 위임과 숙소 매입으로 이들이 오르내린 총무팀장과 홍보마케팅 팀장을 대신해 전문가를 영입하는 계획이다. 불거진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광주시는 2010년 61억원의(시민주 21억, 유상증자 40억) 자본금으로 창당됐지만 매년 은행에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예산 운영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최강희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주영(셀타 비고)과 이동국(전북)을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 경기의 공격

선봉으로 선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B조 6차전을 앞두고 파주 NFC에서 훈련하는 이동국(왼쪽)과 박주영.

/연합뉴스

</div